

지역 소식통

정읍시, 영농철 맞춤형

현장 지도 강화 추진

정읍시가 본격 영농철을 맞아 농업인상담소를 거점으로 한 작목별 맞춤형 현장 밀착 영농 지도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을 돕기 위해 시기별 기술 지도를 대폭 강화했다. 특히 지난달부터 농업인상담소 운영을 전면 재개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영농 지도에 즉각 반영하는 소통 거점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번 현장 지도는 농작물별 생육 특성과 당면 과제에 철저히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 발생했던 벼 종자 발아율 저하 문제를 교훈 삼아 꼼꼼한 종자 선별과 소독 요령을 밀착 지도하며 초기 생육 불량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벼 보급종 부족 사태에 대비해 우량 종자 확보를 돕고 고추 정식 시기를 앞두고 육묘상 병해충 방제와 세밀한 후기 관리 기술을 전수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장애인연합회

20일 장애인의 날 행사

부안군장애인연합회는 오는 20일 부안예술회관 일원에서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행사는 '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을 주제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 구성원 간 상호 존중과 공감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해, 장애인과 가족, 지역사회 관계자 등 약 500여 명이 참여한다.

부안군장애인연합회 주관으로 진행하며, 자원봉사자와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원활한 행사 운영과 안전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념식에 장애인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장애인단체 추천을 통해 복지성금이 전달된다. 문화행사로 품바공연과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참석자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이 펼쳐진다. /부안=김석진 기자

# 고창 청보리밭축제, 18일 개막

5월 10일까지 공음면 학원관광농원서 개최... '보는 축제'에서 '걷는 축제'로 전환  
보리밭 사이길 걷기 프로그램·포토존 조성·관람차 이색체험·안심 먹거리 등 '풍성'

고창청보리밭축제장은 지금 청보리가 겨우내 얼었던 대지를 녹이고 초록빛 얼굴을 내밀고 있다. 30만평 광활한 대지에 초록빛으로 물들인 청보리가 관광객을 향해 손짓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 경관농업 축제인 '고창 청보리밭축제'가 오는 18일부터 5월 10일까지 '봄의 기억, 길 위에 남다'를 주제로 고창군 공음면 학원관광농원 열린다.

올해로 23회째를 맞는 '고창 청보리밭축제'는 전국 최초 '보리'를 주제로 한 경관농업 대표 축제다. 고창군이 주최하고 고창청보리밭축제위원회가 주관하며 전북특별자치도, NH농협은행고창군지부, 한수원(주)한빛원자력본부가 후원한다.

올해 축제는 '보는 축제'에서 '걷는 축제'로의 전환이 핵심이다. 청보리밭 한가운데를 직접 걸을 수 있는 '보리밭 사이길 걷기' 프로그램(체력료 3,000원, 고창군민 무료)이 정식



운영되며, 방문객은 초록 물결 속을 거닐며 자연과 교감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보리밭 곳곳에는 감성형 포토존이 조성되어 자연 속에서의 순간을 기록할 수 있으며, 트랙터 관람차를 활용한 이색 체험까지 더해져 머무르고 싶은 공간형 축제로 완성도를 높였

다. 또한 먹거리 안전도 빼놓을 수 없다. 군은 축제장 내 음식점 위생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고 바가지 요금없는 축제 운영을 위해 종합상황실 내 신고센터, 식서류 및 판매품목에 대한 가격 표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정읍시, 대한고속과 손잡고 교통혁신 나선다

생생 협약 체결... 분사 정읍 이전·대중교통 편의 대폭 개선 맞춘

정읍시가 16일 (주)대한고속과 대중교통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한고속 분사 정읍 이전 추진을 비롯한 시민 체감형 교통 서비스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번 협약은 대중교통 기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한고속 분사를 전주에서 정읍으로 이전을 추진해, 시민 중심의 교통 서비스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뒀다.

협약에 따라 시는 감소형 자생형 도

시(스마트도시) 조성 사업과 연계해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도입과 버스정보시스템(BIS) 고도화 등 첨단 교통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이와 함께 대한고속 분사 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대한고속 역시 정읍에 기반을 둔 대중교통 운영 체계를 한층 강화해 안정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지역 인재 채용을 늘리는 등 상생 발전에 든든하게 힘을 보낼 예정이다.

시는 이번 협약이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크게 높이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분사 이전이 이뤄질 경우 따른 상주 인력 증가로 지역 내 소비 확대와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 등 세수 확보와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에도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한편, 정읍시는 향후 세부 실행 계획을 꼼꼼히 수립하고 단계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협약의 실효성을 굳건히 높여갈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정읍시,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도움 창구 설치

5월 1일~ 6월 1일 운영

정읍시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다음 달 1일부터 납세자 편의를 위한 전자 신고 도움 창구를 본격 운영한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와 지방세 위탁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전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소규모 자영업자와 연금 생활자 등 안내 대상자에게 수입 금액부터 납부 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모두채움신고서'를 발송했다.

시는 해당 신고서를 받고도 전자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시청 1층 민원지적과 내에 전자 신고 도움 창구를 설치한다.

이곳에서는 세금 신고 방법과 납부 요령 등을 방문객의 눈높이에 맞춰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일반 신고자가 시정을 방문해 스스로 전자 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독립된 자기 작성 창구도 함께 마련해 납세 편의를 한층 높인다.

신고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정읍시 세정과(063-539-5288)를 비롯해 개인지방소득세 전용 상담 센터(063-539-5270), 국세상담센터(1661-6669)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은 1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읍·면 이장협의회장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읍시 2026년 햇빛소득마을 공모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부안군, 햇빛소득마을 공모 주민설명회

태양광 수익 주민 환원... 에너지 자립기반 구축·주민 삶의 질 향상

부안군은 1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읍·면 이장협의회장, 주민자치위원장, 마을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2026년 햇빛소득마을 공모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주민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수익을 마을 복지와 주민 소득으로 환원하는 주민 주도형 사업으로, 주민 70% 이상의 동의를 기반으로 추진되는 만큼 공동체 참여와 수용성이 핵심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정부의 기본사회 추진방향을 비롯해 참여자격, 지원내용, 평가기준 등에 대한 안내와 함께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했다. 부안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에너지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마을 단위의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인허가와 협동조합 운영 등 전 과정에 대한 행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화영 군수 권한대행은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지역 자원을 주민 소득과 복지로 연결하는 새로운 모델"이라며, "주민과 행정이 협력해 부안형 기본사회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고창군, 반평여행 1차 사전신청 조기 마감

2차 접수 내달 13일 오픈...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여행비 50% 환급

고창군의 '고창반평여행'이 신청자 폭주로 신청접수 이틀만인 지난 15일 1차 사전신청이 조기 마감 됐다. 2차 사전신청은 오는 5월13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며, 여행기간은 5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1차 신청자의 유형별로는 가족 단위가 50.7%로 가장 많았고, 단체는 33%, 청년은 9% 개인은 7.3%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라권이 3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기 25.7%, 서울 15.8%, 충청 15.6%, 경상 10%, 강원 0.7%, 기타 0.2% 순이다.

고창군은 연초부터 반평여행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다. 그결과 문화체육관광부

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 '2026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특히 숙박업소 및 음식점, 체험시설 등을 대상으로 사업 안내와 가맹점 참여 유도를 병행하고, 이용 절차 및 정산 방식에 대한 사전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고창반평여행'은 사전 신청 후 관내 숙박·식사·체험 등에 사용한 비용을 증빙할 경우 최대 50%를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한도는 개인 최대 10만원, 단체(2인 이상) 최대 20만원, 가족 최대 50만원, 청년 최대 14만원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